



+ 김효진 · 월간 '라 뮤지카' 편집장/미술칼럼니스트

GIORGIO DE CHIRICO

초현실주의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받은 조르조 데 키리코는
인간 존재의 불안함과 사물의 이면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
상상력 너머에 있는 대상을 찾고자 했던 키리코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없다면 달리 무엇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1908년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는 말했다. 이 말에 키리코의 회화세계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의 대상이 되었던 키리코의 작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해준다. 그가 자신의 예술관에 대해 말한다.

“모든 물체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 일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보이는 면이요, 또 다른 면은 극소수의 한정된 사람만이 비상한 통찰력과 형이상학적인 명상이 일치하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신들린 듯한 형이상학적인 면이다. 예술작품은 반드시 외양에 나타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이루어져야만 한다.”

1912년 프랑스 파리의 살롱 도톤(Salon d'automne)에 세 점의 작품을 출품하면서, 키리코의 존재는 알려 졌다. 이 기이하고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찬 그림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기욤 아폴리네르를 비롯한 몇 사람 밖에 없었다. 파리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태리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이 전시를 계기로 아폴리네르라는 아방가르드의 대변인을 알게 되었다(1914년 키리코는 아폴리네르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이때부터 키리코 자신이 “형이상학적 회화”(Peinture Metaphysique)라고 이름 붙인 작품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동시대의 미래주의 선언에 대한 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Love Song

형이상학적이란 용어는 키리코에게 있어 사물의 표면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물이 관객의 기억과 어우러졌을 때 다양한 의미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기억의 사슬이라고 불렀던 것이 끊어지면 사물은 새롭고 불안한 외양, 즉, “몇몇 사람들만이 투시할 수 있고 추상화시켜서만 볼 수 있는 환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일면”을 얻게 된다.

그에게는 엄숙하게 기둥이 늘어선 길과 넓은 광장이 있는 토리노와 페라레의 건물들이야말로 얼어붙은 듯하고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한 기관차, 조각상, 그림자 같은 이미지들이 가장 적절한 배경이었다. 이러한 조망 속에서 원근법적인 공간의 깊이는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작품 역시 종종 초현실주의 화가들을 매혹시킨 낯설음과 번민을 미묘하게 강조하는 모순성을 내포한다.

〈거리의 신비와 우울, 1914〉을 보자. 양 옆으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10대의 소녀로 보이는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면서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화면 상단의 오른쪽엔 웬지 모르게 불길한 그림자가 보인다.

키리코가 지대한 영향을 받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토리노에서 모든 것은 환영이며 정확하게 기하학적인 광장 너머로 우리는 무한한 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 그림을 보는 관객은 약간의 폐소공포증을 경험한다.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는 불안감을 동반하고 있다. 원근법의 왜곡으로 인한 관객의 시각적 공간감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 그림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소녀와 그림자와 건물들이 정확히 어떤 걸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 자체에서 오는 기괴함은 관객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사실, 길게 늘어선 건물이나 그림자들은 “무한에 대한 노스텔지아”(1914)나 “예언자의 보답(1913)”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주 쓰이는 모티브이다.

키리코는 “세상의 어떤 면이 언제나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서도 볼 수 없었던 신비로움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우리와 대면할 때, 우리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때 그들의 죽은 목소리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소리는 다른 행성에서 온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다.



Mystery and Melancholy of the Street ▲
The Nostalgia of the Infinite ►

The Horses in sea



self portrait

우리는 데페이즈망(Depaysment)에 대한 화가 자신의 최초의 기억을 알고 있다. 1910년 가을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광장에서 키리코는 장 질환을 잃다가 회복되고 있었다. “내 주위의 모든 세상이 빌딩의 대리석과 분수가 지도 소생하는 듯이 보였다. 그 광장에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동상이 있었는데, 강렬하고 뜨거운 가을 태양이 그 동상을 감싸고 교회의 벽면을 내리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치 그 사물들이 처음 보는듯한 낯선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계시는 1912년 파리에서 전시된 “어느 가을 오후의 불가사의”(1912)와 길게 늘어진 그림자, 마네킹, 탑, 그리고 굴뚝이 신비로운 아케이드(arcades)와 함께 왜곡된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는 폐허가 되어 얼어붙은 듯한 도시 풍경 연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치 사물과 공간이 낯설고 기이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안락한 친숙함을 빼앗겨 버린 듯이 모든 것들이 변형되어 있고 조금은 위협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광장과 아케이드를 병치시킨 것에 대하여 루이 아라공은 “그 도시의 전체 설계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키리코는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살바로드 달리부터 르네 마그리트까지 대부분의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오토 딕스를 비롯한 신즉물주의 화가들 거의 모두가 키리코의 자장 안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의 공예가 톰 리폰과 건축과 알도 로시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미술사에 있어 키리코가 남긴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매너리즘시대에 활동했던 카라바조의 영향력에 비견할만하다. 카라바조의 영향력은 조르주 드 라 투르, 디에고 벨라스케스, 페터 파울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 반 레인을 비롯한 벨기에와 네덜란드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무한대의 영향력을 남겼던 키리코의 회화세계는 1919년부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른바 '고전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한다. 사실 20년대에는 앙드레 드랭과 파블로 피카소 등의 화가들이 고전적인 질서로 회귀한다.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은 키리코의 천재성이 이 시점부터 조금씩 소멸해가는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주류 미술사의 입장일 뿐이다. 키리코는 여전히 불안정성 속의 인간, 존재 내 비존재를 탐구하고 있던 것이다. 다만 걸음으로 드러나는 화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녹아든 내러티브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외형적 형태의 귀결은 내적 필연성을 담보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적 본질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리코에 대한 나의 지지는 여전히 전하다.



▲ Dream Metamorphosis
◀ The Conquest of the Philosopher.jpg
▼ Cavalli(the Horses)

마지막으로 키리코 자신의 말(1938년)을 확인하면서 이 글을 매듭짓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술작품이 진실로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 내에서 벗어나야 하며, 논리나 상식은 여기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이는 꿈과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에 가깝다. 선사 이래 인간이 물려받은 가장 강력한 감각은 예감으로 늘 우리와 더불어 있다. 마치 우주의 무의미의 영원한 증거인 것처럼.”

Piazza d' Italia



GIORGIO DE CHIRICO